

내달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농식품부, 장기 사육 유도 농가 생산비 부담 큰 마블링 중심 등급체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편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이번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편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 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식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했다. '04년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 성별 구분 없이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품종별·성별을 고려하여 개발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 B, C)을 판정하게 된다. 육량지수는 농가와 중도매인 등 중간 상인간 거래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소 마리당 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지표의 제공을 통해 고기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가의 생산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개편된 등급 기준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농가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알림 현수막 부착 ▲식육판매점 안내 포스터를 제공 ▲TV·신문·옥외광고판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선 품질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영상 이미지 교육,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도매시장에서도 개편된 등급기준을 반영하여 경매상황을 경매사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관관 시스템 보완 등을 12월 1일 시행 이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요구와 국내외 쇠고기산업 여건, 쇠고기 산업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전문가·생산자·소비자의견 등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쇠고기 등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이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농가와 유통업체, 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편된 등급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지속가능 기계화 위한 자금 조달

농진청, 29일까지 아-태 농업기계화 포럼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간 분청 국제회의장(전주시 덕진구, 전북혁신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와 함께 제7차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 지역 포럼을 연다.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는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역기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 이익과 농촌 생활 개선,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해마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계화를 위한 자금 조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금융기관, 농업인단체, 비영리단체, 민간부문 대표 등 18개 나라에서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라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논한다.

이어 우리나라의 농업 현황과 기술, 연구 동향에 관한 소개와 함께 농기계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트랙터 생산업체를 방문한다.

성재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과학과장은 "이번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협업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껏 쌓아온 연구성과에 국제연합의 네트워크가 힘을 실어주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로워진 '올원뱅크'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고객 편의성 증대 초점

시스템 전면 개편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의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화를 위해 오픈뱅킹 적용, 화면구성 개선, 음성 송금 서비스 도입 등 고객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NH스마트뱅킹과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올원뱅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좌이체나 ATM출금, 환전 등 거래 시 잔액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당·타행 계좌에서 잔액을 충전할 수 있는 '잔액채우기' 기능을 추가해 오픈뱅킹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UI(사용자 환경)와 UX(사용자 경험)도 심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했고, 송금, 결제, 환전, CD/ATM 출금 등 주요 서비스들을 메인화면 전면 배치로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금융 거래에 재미요소를 더한 AR송금 알림 서비스도 선보였다.

다불어, SK텔레콤의 AI기반 음성인식 플랫폼 'NUGU'와 업무 제휴를 맺어, 금융권 최초로 웨이크업 워드 '아리아'를 부르면 AI가 반응하는 음성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향후 AI를 활용한 음성뱅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이체 한도 희망 고객을 위한 올원뱅크 전용 보안매체 '올원PASS'를 출시해 기존 이체한도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이체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출시하여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의 대출상품 금리와 한도를 현저하게 낮추고 대출 신청까지 가능한 통합대출상품 추천 서비스 다모야대출과 올원뱅크를 쓸수록 우대금리가 높아지는 '올원캐디에움'을 선보였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올원뱅크 리뉴얼 오픈이벤트 1.2'를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전주, 아동학대예방 행복엽서 공모전 시상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는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이동권리센터와 함께 26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2019 아동학대 예방 행복엽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든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또 아동학대가 단순한 가정 내,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행위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자행돼 온 학대와 폭력 등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데도 초점을 뒀다.

2014~2018년에 이어 올해도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이 각 부문별로 총 382점의 작품을 응모해 성황을 이루었다.

공모전 결과 '행복'으로 가득찬 아이를 출품한 전주중앙여고 1학년 김서연 양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초등부에서는 전주만성초 김가운 양과 이리서초 정예영 양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중·고등부와 일반부에서는 남원 한빛중 조소망 군과 최경애 씨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 사랑의 연탄 나눔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공단체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25일 전주시 동완산동 일대에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정에 신입행원 및 임직원이 연탄을 직접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신입행원을 비롯한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50여명은 독거노인 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고, 정성으로 모은 성금으로는 시각장애인 가정에 세탁기를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6일 전북혁신도시 공단 본부 사육에서 열린 제11차 이사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다.

'국민의 든든한 평생파트너'

국민연금공단, 비전 선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6일 전북혁신도시 공단 본부 사육에서 열린 제11차 이사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다.

비전 선언문은 공단 비전인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이 실천해야 할 행동강령을 담은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금운용으로 국민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하여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비전 실현을 위해 내부 역량을 더욱 결집하고,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비전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단은 국민의 안전적이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창작놀이터 메이커 제작 교육생 모집

도-경진원, 프로그램 운영

29일까지 시제품제작소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메이커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12월 4일에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창작놀이터 메이커 제작 교육(초급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에는 메이커들을 위한 초급반 교육을 4월부터 현재까지 24회를 진행했고, 154명의 도민들이 3D프린터 실습, 도예공예교육, 레이저커팅기 등 다양한 장비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농협 '사랑나눔 김장축제'

전주농협은 '2019 사랑나눔 김장축제'를 25~26일 양일간 전미동에 위치한 전주농협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실시했다.

관내 부녀회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에서 생산한 배추 2,000포기로 김치를 담근 '사랑나눔 김장축제'는 약 30여 년간 매년 펼쳐 온 연탄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의 하나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2월의 마지막 교육은 그동안 인기와 수요가 높았던 목공제작교육을 준비했다. 전문강사와 함께 시제품제작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직접 사용해 재단부터 절단, 마감까지 모두 손수 제작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100% 무료 지원이며, 결과물은 교육생이 수령 가능하다.

교육 참여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전북시제품제작소 홈페이지(www.jb3dcaf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기기술팀(063-711-2062)으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로, 봉사활동을 통한 부녀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봉사축제의 장이 됐다. /김윤상 기자



탄자니아에서 공간정보 로드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와 국토교통부가 국내 12개 공간정보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아프리카 대륙 탄자니아에 선보였다.

LX와 국토부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탄자니아 다레살람 세리나호텔에서 개최된 '2019 탄자니아 공간정보 로드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26일 밝혔다.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탄자니아 정부관계자와 공간정보전문가, 국내 12개 공간정보 민간기업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기술세미나와 전시회, 비즈니스 미팅 등 국내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술세미나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사례, 도시안전 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 등이 소개됐으며, 전시회에서는 기업의 최신 기술과 다양한 공간정보 모델 구축 사례 등을 선보였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26일 참예우 도청점에서 전북 대의원 조희정장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북농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4%이상 수준 확대 등 제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6일 참예우 도청점에서 전북 대의원 조희정장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우려를 금치 못하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전반에 큰 피해가 예상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개도국 지위포기는 식량주권과 농업의 포기로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4%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

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전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차기 농업협상시 진전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을 큰 폭으로 감축하게 되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이른 시일 내에 농업인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